

# 실존적 자각으로서 모더니즘

- 50년대를 중심으로 -

배 경 열\*

## 1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작품세계에 대한 다양한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생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려는 작가들의 시선이 전환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하물며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과의 부딪힘은 비인간적인 메카니즘을 의식하게 하고 죽음과 삶의 문제가 날카롭게 부각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깊은 의식이 대두된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양식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존질서와 선형적 가치들이 한꺼번에 붕괴되어 가는 전쟁의 폐허와 카오스 속에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이 생래적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실한 노력은 그 일부분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나타내서 50년대 한국 정신사의 지평에 맹렬한 세력으로 유행”<sup>1)</sup>하였으며 그 무렵 대다수의 전후작가들에게 정신적 고민의 탈출구로서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고민문학은 모더니즘문학으로 연결되었다.

5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실존주의의 기본 성격은 모더니즘적 특성을 그 내적 속성으로 가지는 동시에 리얼리즘적 계기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미적 보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특수성의 매개를 재현

---

\* 박사과정 수료

1)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3, 129면.

해야 한다는 견해가 리얼리즘의 예술이론이라면, 모더니즘의 예술론은 개인의 미학적 판단과 안목이 보편적인 미적 판단과 일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사조가 같은 시기에 거의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문학적념 및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바로 50년대 실존주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맥락일지도 모른다.

실존주의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더니즘론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근거는 리얼리즘을 그 대타적 개념으로 설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50년대 실존주의는 현실 참여와 현실 묘사의 차원을 맡고 있었으며, 그것은 '전후문학에서 기존의 민족문학을 순수·참여 문학으로 나누는 갈림길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의 문학에서 차지하는 실존주의의 위치는 구체적인 수용이나 이해의 수준이나 적용의 국면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정서나 의식에 미친 영향이 훨씬 지대했다. 실상 실존주의가 당대인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에 대한 철학적 구명이나 이해의 차원에서가 아니다. 그 보다는 정서적·의식적 분위기에 작용했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실존주의는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를 문제삼기보다 그 보편적인 심리적 경사로 인해 50년대의 정신적 풍경을 대변해 준다. 새로운 소설가들이 전후의 공후 담론인 '실존'을 독점함으로써 세대간 권력 관계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삶과 현실이 정서적으로 치환된 실존주의의 광범위한 심리적 경사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50년대 문학은 모더니즘의 기획과 영향력이 강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실존주의 역시 그 세계관적 기반이나 미학적 범주,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인식 등 모더니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으로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모더니즘은 당대 사회에 대한 시대 의식, 전통 서정시에 대한 대타성, 30년대 모더니즘의 극복이라는 현실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방법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구세대의 문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 비판의 근거로는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역사의 경험의 편차에 오는 체험의 이질성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라는 보편적 시대에 대한 의식의 차이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모더니스트를 자처하면서도 신영토를 개척하지도, 내면성과 전통의식을 가지지도 못했던

30년대 모더니스트들과 한국시단만이 가지는 슬픈 숙명인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었던 ‘청록파’ 등의 전통 서정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주장한다. 모더니스트는 ‘현대성의 애매모호함과 모순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씩씩하며 살아가는 추구자인 동시에 적대자’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아이러니와 내적 긴장이야말로 이들의 ‘창조력의 1차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현대가 노출하는 모순과 아이러니에 한편으로 매혹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하면서 창조적 추리력을 얻는 과정은, 협의의 모더니즘 작가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리얼리즘을 포함한 ‘현대문학’의 기본적 자질이다. 실존주의의 모더니즘적 성격은 주로 ‘실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비평가들의 논의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실존주의에서 모더니즘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읽어 냈던 것은 비평가들보다도 오히려 작가들이었다.

1950년대는 한국동란을 통해 사회적 총체성이 균열된 시대이다. 전쟁이라는 하나의 상황을 통해 생의 극한성을 체득한 전후 세대들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따라서 몰락과 폐허의 잔해로 얼룩져 있는 전후의 상황 속에서 전후의 작가들은 파편화되어 있는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초월을 소설 속에 담아 내는 경향을 보인다. 작가 개인에게 있어 전후의 모순된 현실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당위적 임무였던 것이다.

작가들은 ‘전후’를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대이자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인간의 구원을 모색하는 현대로 생각하였다. 부조리와 극한상황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전후세대 작가들은 새로운 모더니스트적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폐허, 퇴폐성, 부조리, 절망 등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부조리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개인의 자유 추구가 휴머니즘에의 갈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을 승인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허무의식과 무력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개인은 “스스로의 무상에서 벗어나고자 아우성 치는 존재의 한 파라독스”<sup>2)</sup>였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를 일컬어 인간 위기의 시대, 인간 상실의 시대, 자기

2) 이환, 「휴머니즘과 실존주의」, 『문학예술』, 1956.7, 200면.

소의 시대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은 현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명적 상황에서 기인된 것들이다. 과학적 문명의 체계에 의한 인간의 소외, 대중사회의 메카니즘에 의한 무력감과 좌절의식, 인간의 대량 살상을 조장하는 전쟁에 의한 생의 불안과 허무적 인식 등의 상황이 현대의 인간성 말살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감성이 날카로운 작가에 의해서 퇴폐적인 경향으로 당시의 사회상이 관찰되고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하나의 시대적 몰락은 인간의 존재를 영의 지점에 떨어지게 한다. 낡은 세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중의 부재상황의 공포가 존재 상실의 해명, 이른바 '존재의 문학'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서구의 전후적 상황을 문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절망과 위기와 불안에 대한 휴머니즘으로서의 문학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응축시켜 놓은 것이 실존주의이다. 휴머니즘이며 자유의 철학으로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자아의식적이고 책임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의 실존은 사물의 존재와 다르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미래적인 투사에 의해 현실 상황을 초극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닌다. 이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실존주의는 인간 중심의 인간과학으로서 주관주의적인 개체로서의 주체성을 중시한 점에서 휴머니즘과 접맥된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인간 조건의 부조리함과 삶의 무의미성을 인지하게 된 모더니즘 소설가들은 인간의 본래적 고독과 탈역사적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 소설가들도 한국동란으로 인한 시대적 정황을 서구의 전후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때마침 밀려들어오는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소설 속에서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을 펼쳐가고 있다.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의 반영은 인물의 자아의 정체성의 추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추구는 주로 인물의 내면세계로의 탐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물의 내면세계는 의식의 흐름과 내적 독백의 사용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실존주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는 또다른 근거로는 모더니스트들에게 실존주의가 새로운 현대사조로 수용되

어 무리없이 이론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석규의 경우 모더니티와 실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모색하면서 현대문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론을 창출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모더니즘을 실존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가장 내면적으로 존재에 일치하는 것이란 결국 개인의 실존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는 모더니즘이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현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실존'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모더니즘을 실존주의와 동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진정한 모더니즘이란 현대에 살고 있다는 현대인으로 써의 사회의식과 감각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철학을 그 문학에 반영시키는 '현대중심의 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실존주의가 당시 우리 나라의 매카시즘적 풍토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후문단에 있어서 실존주의의 유행은 사실상 전후세대의 전쟁관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서구 실존주의가 독일 파시즘의 점령 하에 있었던 프랑스 지식인의 고민의 산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역시 시민사회의 위기와 파시즘의 일환으로 파악했던 전후세대에게 있어서 실존주의는 현실을 가장 적실히 드러낼 수 있는 사상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후문단에서 실존주의의 유행은 한국적 특수상황에 대한 전후세대의 시대감각을 흐트러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용자들은 현대를 위기·절망·불안·고독 등으로 규정하고 실존의 문제를 열악한 한국 현실에서 찾기보다 세계성이라는 보편적 명목 하에서 실존사상에 맹목적으로 다가갔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존의 개념은 감상으로서의 실존이며 허무로서의 실존이었다. 당시 문학인들에게 실존주의는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갈 주체적인 참여문학이기 보다, 그 세계로부터 내놓은 개인을 감싸 주는 문학이었다. 이것은 분단상황이 현실의 총체적 전망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6·25 이후 갖가지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리얼리즘의 성취가 어려웠던 것은 이 때문이다. 50년대의 실존주의의 성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후의 현실적 불안과 고통을 사회적 모순에서 근원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본래적인 부조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 2.1

근대성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인간 주체가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역사를 진보, 발전시킨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근대성 기획의 이론적 기초는 이성과 이성적 방법의 확신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이며, 이 사고들은 근대를 지배하는 정신세계의 근본틀이 된다. 이것은 근대과학이 본질적으로 비형이상학적 학문이 되도록 만드는데 기여했다. 고·중세 서양 전통과 비서구권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종교와 형이상학으로부터의 이러한 과학의 해방(과학의 자율성)은 한편으로는 사적 영역(개인의 경험, 종교적 믿음, 형이상학적 전제)과 공적영역의 분리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지닌 효용성과 실질성으로 인해 과학은 종교나 형이상학보다 더 큰 힘을 실제적 삶에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신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던 역사의 흐름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역사로 보아 세계구성의 주체를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빼앗아 오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이다. 그러한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역사관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서구 중세의 사회 경제적 에너지의 고갈과 연결되어 있다. 이미 서구의 중세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세계 교류의 확대와 인식 세계의 영역 확대 등으로 그 구성원들 스스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 페스트의 만연, 십자군 전쟁의 실패, 오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유통 산업의 발달로 그로 인한 자본의 발생과 확대, 봉건 영주와 자본주의자들 간의 조세갈등 등은 근세의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테르 등의 백과전서파들의 등장과 자본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열기는 철학적 모더니티라는 이성 중심과 진보적 세계관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그러나 얼핏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주체가 곧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성적인 자아는 실존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추방하거나 억압하는 논리이다. 코기토로 상징되는 이성중심주의는 무의식을 배제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한정시켰다. 현실세계는 이성의 힘으로서

3) 윌 듀란트, 『철학 이야기』, 문예출판사, 1986, 86~200면.

는 똑똑하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은 어둡고 캄캄하여 음울한 느낌을 그 밑바닥에는 악마라도 숨어 있을 것 같은 심연으로 여겨진다. 파스칼이 인간은 무한대와 무한소라는 두 무한 사이에 서 있는 불안한 존재라고 말했을 때 벌써 거기에 실존철학적 사고방식이 내재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간은 위를 보아도 밑을 보아도 이성의 힘이 닿는 그 바로 한 걸음 앞은 무한한 심연에 직면하고 있다. 이성에 의해서 비친 영역은 극히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 합리주의는 단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치체계를 고정시켜 놓고 그것에 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보편적인 것은 가치가 높고 개별적인 것은 가치가 낮으며 이성적인 것에 인간의 가치가 있으며 감정은 사리에 어두워서 미혹과 범죄의 원천이 되고, 의지는 비합리적인 충동으로서 동물적이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정화된 하나의 테두리 속에 생생한 인간을 잡아 가두어 버린다는 것은 결코 반조각의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실존철학은 보편적인 논리의 테두리 속에 투입시킬 수 없는 구체적이고 유일한 개인성을 존중한다. 인격의 단독성이라든가 예외자라 하는 것도 개성을 중시하는데서 나온 말이다. 이런 점은 모더니스트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점이다.

모더니즘의 발생 배경을 보면 19세기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바탕으로 한다.

19세기 후반에 가까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9세기 문화 본래의 특색이 가장 철저한 형태로 나타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구가하고 과학의 만능을 외치게 되었다. 문학에는 공상·이상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하려는 자연주의 문학(Naturalism)이 일어나고 철학·사회·사상 방면에서는 유물주의·실증주의가 유행하였다.<sup>4)</sup>

모더니즘의 비전과 이념은 '모든 사람들을 근대화의 객체이자 주체로 만드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 소용돌이를 헤치고 나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조좌호, 『세계문화사』, 박영사, 1990, 24면 참조.

모더니즘이 근대화와 맺고 있는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모더니즘은 근대화에 의존하면서도 근대화에 도전하며, 근대화를 반영하면서도 근대화에 개입하고, 근대화에 적응하면서도 근대화에 반발한다. 그것 양자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여하고 제약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르네상스 이래로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 왔던 도덕과 가치기준, 인도적 이념, 신앙 등이 붕괴되었다. 전쟁과 위기상황 앞에서 이처럼 왜소하게 드러내진 서구인들은 대부분 고민과 방황 속에 빠져들었으며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또 느끼지 않기도 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잃어버린 자아를 찾았지만 또한 자아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자아의 발견’을 내용으로 하는 실존주의 문학이 마땅히 시세에 호응하여 생겨났고 급속하게 흥성의 절정에 도달했다.

이에 키에르케고르는 근대사회를 풍미한 데카르트로부터 헤겔에 이르는 추상적인 사상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는 인간을 객관화하고 추상화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관념적 태도를 배척하고 지성과 감정, 의지가 종합된 구체적 실존으로서 경험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실존’은 주로 인간 개인의 유일하고 구체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존재란 합리적 사고로 구성된 어떤 시스템에 담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우연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본질주의는 모순이 극복되는 한 조직적 구조 속에 인간과 만물을 집어넣으려 시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실존은 이제까지 철학에서 등한시 되어 온 ‘비합리성’을 중시한다. 실존철학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합리주의에 반기를 든다.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 대신에 정의적(情意的)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체계적이고 관조적이며 논리적인 사유보다는 비체계적이고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의지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진실한 것(실존)은 합리적 사고로 만들어진 틀 속에 맞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는 개인이 직면한 실존에 내재된 난점은 그것이 추상적 사고의 언어로는 진정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설명될 수는 더욱 없다는 데 있다. 추상적 사고는 실존의 과정인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



이며, 이것이 실존하는 개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총합체인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요체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나 사고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는 인간 존재의 양면을 통일된 전체로 결합시킬 수도 없다. 실존은 지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본질이 아니다. 만약 인간이 그 자신을 존재의 어떤 조직적 구조나 사고의 합리적 시스템에 흡수되도록 허용한다면 인간 이하의 것이 된다. 인간은 그 본연의 유일한 개인으로서 나타나 존재하며 어떤 시스템에도 흡수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바로 그의 존재를 충실히 실현시키는 것이다. 실존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진실하고 하나뿐인 개별적인 존재인 '제 각각의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있는 '나'가 아니라, 되어가는 '나'이며 창조하는 '나', 지향하는 직접적인 존재로서의 '나'이다. 실존이란 객관화될 수 없고 대상화될 수 없는 '내면성' 그리고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객관화될 수 없고 대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제각기 자기 이외에는 그 아무도 자기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진리는 인간의 내면성에 거주한다. 실존철학이 시도하는 '내면성'에로의 육박은 저 소크라테스의 고전적인 '너 자신을 알라'는 권유, 헤라클레이토스의 '결국 나는 나 자신을 탐구했다'는 고백, 아우구스티누스의 '밖으로 향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가라. 진리는 인간 내부에 있다'라는 명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실존은 '본래적 존재'로서 자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사회의 조직화로 인해 인간은 급속도로 대중화, 평균화, 도구화, 전문화, 부분품화 되고, 따라서 유행과 모방에 휩쓸려서 비본래적인 존재가 되기 쉽다. 니이체가 '시장의 파리떼'로 비유해서 비웃은 것은 바로 이러한 본래적 자기를 상실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실존철학은 본래적 자기에로의 귀환을 촉구한다. 실존철학에서 '주체성'은 행동적인 자주성을 의미하고, 또한 실천적으로 변혁해 가는 전인적 능동성을 지시한다. 실존주의에 있어서 주체성이란 내면적인 자율성이 중요시된다. 그 결과 그들은 철학적 주체를 통개인적 주체(trans-subjectivity)에서 개별주체로 옮기게 되며 체계보다는 인식적

비약(epiphany)을 강조하게 된다.<sup>5)</sup> 따라서 실존주의는 “모든 현상이 체계 안에 담을 수 없는, 설명을 넘어서는 …… 인과율 안에 연결지을 수 없는 …… 이른바 불연속의 연속”인<sup>6)</sup> 것이다.

실존철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주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실존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절대자가 되는 것이다. 신에 의해 규정된 인간 본성이란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여기에서 자유란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의 자율적인 선택 행위’를 말한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객관화 위주의 합리주의에 반기를 든 키에르케고르의 글들은 19세기 중엽 이전에 씌어졌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전 유럽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실존주의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하나의 진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대전과 같이 강요된 진리가 결국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인류를 절망에 빠뜨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강요된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 각 개인이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자는 개인주의가 바로 실존주의다.

이것은 당시에 극치에 달했던 서구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단적인 사회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살았던 문화예술인들은 산업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소외를 강하게 느꼈고 물질 위주의 전통에서 형성된 모든 가치 체계에 실망하였다. 그들은 또한 산업사회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창조적인 인간 사이의 부조화를 몸으로 느꼈으며, 그 세계관을 뒷받침한 합리주의의 속박 속에 자유를 몰수당한 인간정신의 비참함을 체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실존주의 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니체의 경우를

5) M.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시간과공간사, 1989, 354면.

6) 이환, 「실존주의 문학의 철학적 기반」, 『문학예술』, 1966.1, 152면.

보면 그는 '신은 죽었다'는 명제를 통하여 실존주의에 접근했다. 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동시에 모든 가치의 근원이다. '신이 죽었다'함은 모든 존재와 가치가 그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된다. 인간은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기능의 한 단위에 불과하고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는 '누구라도 괜찮은 어떤 자'에 불과하다. 인간은 각자의 개성이 무시되고 대중화·비인간화 되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려 하였고, 세계를 보는 새로운 인식구조를 탐색하였다. 산업사회 문명과 그것을 뒷받침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실존주의는 모더니즘과 동일하다. 실존주의가 사상 또는 철학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면 모더니즘은 문화예술면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들은 다같이 기계문명 속에서 상실된 인간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은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는 다른 인간 소외가 없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창조성이 배제된 합리주의적 인식구조를 초월한 새로운 세계관을 초월하였다.

이들은 합리성을 초월한 차원의 인식 구조에서 자연의 진실을 보려고 하였다. 이들의 핵심 논제는 인간의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이었는데, 이러한 인간 내부 자아의 추구는 인간 외부에서의 위치와 역할로서 자아의 개념을 규명한 기존의 인간관에 대한 반동이었다. 사회공동체나 우주 전체에서의 일부 기능으로서 객체적 인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부자아를 표증하고 실현하고 창조하고 주체적 인간을 주창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특징이다.

이러한 시각의 인간은 단독자로서 개인의 존재만이 진리이며 그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는 그 중심인 개인의 내면을 통해서 표현코자 하는 욕구가 생성된다. 따라서 내면탐구의 필연성이 요구되며 역사나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감수성이 문학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자에의 관심은 자연스러이 세계주의적이며, 이는 곧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문학이 되고 이러한 시기의 문학은 지역성이나 민족성의 의미를 상실한다.<sup>7)</sup>

모더니즘은 이와 같은 세계관을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양식이며 객관적

7) Peter Folkner, 황동규 역, 『모더니즘』, 서울대출판부, 1987, 91~97면.

인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주체의 의식을 중시하여 자의식을 깊이 탐구하며 형이상학과 상징 및 실존탐구를 통해서 문학을 관념화시킨다. 따라서 모더니스트는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공포와 혼란을 전제로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자아는 허무와 병적 세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오직 허무를 진정한 세계로 보며 그 세계의 상실을 보상 받고자 한다. 여기에서 그들의 세계는 상실되고 언어는 파괴되어 주관적인 내면의 언어, 곧 추상의 언어가 남게 되고 여기서 모더니티는 불연속성, 안전과 위험의 공존, 장소 귀속의 탈피성, 시간 공간의 분리라는 문학적 표현 범<sup>8)</sup>을 지니게 된다.

모더니즘 예술은 과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닌, 구원을 위하여 존재의 지평을 확장하게 하는 램프의 의미를 가진 빛으로의 표현 예술이다. 그리고 그 존재 지평의 근거가 되는 실존의 자기 확립이라는 실존철학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조가경은 실존과 예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철학한다든가 현존재로서 존재를 이해한다는 등의 말은 일정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양식, 인간이 되는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가 <월터런 해석>에서 작사와 역사를 같은 근원에서 논하는 의도도 마찬가지였다. 시를 짓는다, 또는 창조한다는 말은 다같이 가장 순수한, 즉 한갓 모방이나 전통에의 안이한 추종이 아닌, 전면적인 자기 책임의 높이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도박이다.<sup>9)</sup>

모더니즘 각파의 공통된 사상적 기초는 철학용어로 말하자면 바로 비이성적인 것이다. 비이성은 19세기 후반 이래 주관적 유심주의 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유평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주의로서 이성과 이성의 사유 능력을 부정하고 진리를 인식하는 과학의 능력을 부정하며 주위 세계를 인식하는 과학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직각·본능·의지·무의식

8) 조가경, 『실존주의 철학』, 박영사, 1983.

9) A. Giddens, 이윤의·이현희 역,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민영사, 1991, 146면.

등의 맹목적인 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시켰다.

모더니즘 문학의 사상적 기반은 각종의 반이성주의 철학, 예를 들어 니체의 철학이나 베르그송의 직관주의, 프로이트의 학설 등에 기원을 두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특히 2차대전 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실존주의다. 야스퍼스가 <새로운 휴머니즘의 조건과 가능성>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무산계급독재이론을 ‘불합리한 신앙’이라고 공격하고 ‘인간의 실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어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아울러 ‘오늘날 서구의 공통된 의식은 단 세 가지 부정으로 표지를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역사와 전통의 붕괴, 중심이 되는 근본사상의 결핍, 불확실하게 망망한 미래에 대한 방황과 번민이다. 이것은 모더니즘 문학의 사상과 거의 일치한다. 실존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절망의 시기에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심각한 불안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것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현재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전면적인 역사성의 붕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구조들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2.2

모더니즘의 탐구는 전후적 감각과 상상력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다. 휴머니즘을 전후적 감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창작방법론이 전후 모더니즘론이다. 모더니즘은 서구전후문학에서의 감각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학의 현대화, 세계화와 관련된다. 즉 그것은 ‘하나의 세계’라는 인식이 전쟁으로 싹트고, 문학도 서구의 당대문학의 섭취를 통해서 한국문학의 현대화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전후에서 현대문학이란 말할 것도 없이 서구의 전후문학이다. 한국전쟁이 자체의 논리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 국제적 갈등의 결과여서 문인들은 현상에 대한 문학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구 전후 모더니즘을 보편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전후 모더니즘이란 불안의식을 문학내적 측면에서 극복해 보려는 방법적 모색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50년대의 비평에서 모더니즘을 살펴본다는 것은 불안 의식이 내재화와 극복에 대한 방법적 모색을 점검하는 일이다. 그것은 리얼리즘과 대립된 모더니즘을 의미한다. 전후 서구문학에서 세계는 무질서, 혼란으로 보이며,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은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혼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황야에 홀로 있는 고독자로서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하며, 세계는 개인의 내면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건이 된다.

50년대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작가적인 반응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실존문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불안사조는 우리의 경우 전후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구의 전후문학은 대륙에서는 불안의 정신상황에 의해 이루어진 보편적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면서 표현주의나 초현실주의 혹은 실존주의, 영미 모더니즘이 하나의 등우리에서 교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불안정한 불안과 혼란의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는 그와 거리가 있는 영미에까지 영향을 미쳐 서구의 전후문학에서 각 모더니즘 양식의 상호교환을 가져온다. 그것은 서구의 몰락에 대한 불안과 대안으로서의 공통된 의식에서 형성된 정신적 상황이다.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모더니즘은 한국에서는 더욱 손쉽게 받아들여진다. 현대성과 세계성에 굶주려 있는 지식인에게 보편으로서의 서구의 문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이다. 그들은 서구의 당대문학을 국적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면서 내면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더니즘 문학을 거론할 수 있게 된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이 세상에 본래부터 단편적이고 단절되어 있는 공허와 무질서라고 보았고, 이러한 혼돈 상태를 균형잡힌 모습으로 변형시키려 하였다. 엘리엇트는 <울리시즈>에 관한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신화적 방법을 단순히 “공허와 무질서라는 현대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여 의미와 형태를 갖게 하는 방법”<sup>10)</sup>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더니즘 작가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혼돈의 상태에 미적으로 성취된 질서를

10) P. Faulkner, *Modernism*, London : Methuen & Co Ltd, 1977, 77면.

부여하려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모더니즘은 인간의 사유가 자신을 자유로운 주체로서 의식하고 세계 해석의 중심원리를 점유할 때 시작된 존재론적 역사의 과정 전체를 말한다.

모더니즘 소설에서 사회적 근대성과의 불화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관습적인 유대의 균열로 나타난다. 근대의 풍경에 매혹당하면서도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모더니즘 소설의 작가와 주인공은 이제 '내면으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자신의 현존을 확인하게 된다. 모더니즘 소설의 내면성은 그와 같이 유쾌된 자아가 주객동일성의 지향을 철회하고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더니즘이 작품의 자율성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고 말한다. 모더니즘의 자율성이 비유기체적 구성을 통해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고 논의한다.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적 저항은 내용(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지니는 리얼리즘과 달리, 모더니즘이 자율성을 통해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이다.<sup>11)</sup>

시민사회의 예술은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으면서 실제적 생활과의 대립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구해왔다. 자율성은 예술이 사회에서 부분 체계로서 기능하는 방식 곧 제반 사회적 이용에의 요구들에 맞서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일컫는 예술 고유의 특질이 되었다. '예술 대 실제생활'이라는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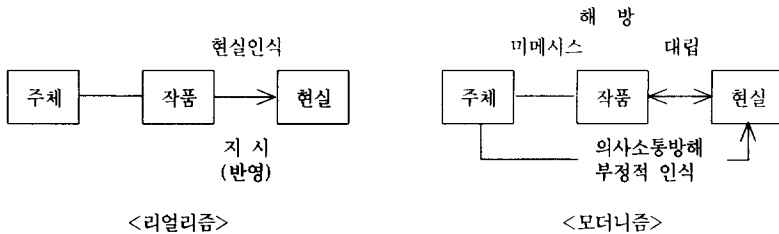
11) 예술의 자율성이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것의 충격을 창출하는 예술적 행위의 고유성을 뜻한다. 문학의 자율성 역시 상상력의 무질제한 이탈이 아니며 또한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무비판적이고도 체제 옹호적인 예술 행위의 조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이 자신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현상은 목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예술을 사회적·경제적 현상으로부터 구제하며, 유포피아적 세계의 현현을 암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뷔르거는 보리의 말을 인용하여 "총체적인 합리성에 대항하여 아름다움을 구원하였고, 아름다움의 반체제적인 기능을 인정하였던 아도르노의 시도 이후 예술지상주의를 데카당스라고 받아들이는 고정관념들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말한다. P. Bürger, 최성만 옮김,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심철당, 1986, 제2장 참조.

한편 아도르노는 자율적 존재이면서 사회적 산물인 예술의 이중성에 근거하여 내재적인 사회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의 안티테제이며 '무기능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기능 연관을 부정하는 "사회에 대해 눈에 가시가 되는 비동일자이다." T. W. Adorno,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참조.

대 예술의 전형적인 구도는 자율성 범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율성 범주는 칸트와 실러의 미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근대의 문화 과정 즉 진·선·미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학·도덕과 법률·예술의 정립의 산물이다. 예술 문화의 기본 원리는 심미주의를 통해 확립된 바 있는, 예술의 사회적 무효과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은 우선 목적합리성과 유용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 일상적 가치 체계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일상적 가치 체계로부터의 우리는 예술의 기능 방식을 일컫는 데 한정되지 않고 유리된 성격 자체를 예술의 내용으로 즉 예술 매체에의 몰두로 전환시키게 된다.

모더니즘은 작품의 내용을 통해 사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을 모더니즘적 '표현'이나 '구성'을 통해 특수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사회에 대립하는 구조물이 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경우 그런 형식적 구조(구성) 자체가 사회에 대립하는 진리내용으로서의 '인식'이 된다.<sup>12)</sup> 리얼리즘에서는 작품내용의 지시적 의미가 인식(현실인식)을 형성하는 반면 모더니즘에서는 (지시적 의미의 의사소통 대신) 현실과 대립하게 만드는 작품의 구조원칙(구성) 자체가 인식(부정적 인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처럼 비유기체적 구성원리는 현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현실과 대립한다. 이 저항의 방식으로서의 자율성은 모순된 사회로부터 주체(작가, 감상자)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현실에 대립하는

12) 아도르노, 같은 책, 350면.



부정적 인식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더니즘은 ‘자율성’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 사회의 예술은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으면서 실제적 생활과의 대립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구해 왔다. 자율성은 예술이 사회에서 부분체계로서 기능하는 방식 곧 제반 사회적 이용에의 요구들에 맞서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일컫는 예술 고유의 특질이 되었다. ‘예술대 실제생활’이라는 근대 예술의 전형적인 구도는 이와 같은 자율성 범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루카치는 모더니스트들이 자신의 개별적 상황에 기인하는 고독과 불안을 인간의 조건으로서 형이상학화한다고 비난하지만, 이 고독과 불안의 체험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사회적 좌표를 지닌다. 즉, 현대 서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적 체험에 철저함으로써 오히려 보편에 도달할 수 있다.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나는 내면성은 근대의 원리인 주관성(Subjectivity)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범주로서, 주체의 사회적·정치적 행동과 언제나 긴장·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내면성과 실천적 행위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 있는, 현대적 주체의 두 가지 존재양상인 것이다. 현대적 주체는 현대적 개인과 집단적 주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주관성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주체의 존재 양상이며, 후자는 주객동일성을 지향하는 유적 존재로서의 주체(민족, 국가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내면성 범주를 특징으로 하는 모더니즘 소설을 결여의 양태로 보는 관점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현대적 인간의 내면성을 실천적 행위에 의해 억압되어야 할 타자로서 인식하는 태도는 모더니즘 소설이 비판하는 사회적 현대성(Social modernity)의 핵심적인 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을 부정적인 특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관점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미학적 차원에서도 루카치는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에서 형식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된다고 하지만, 형식이야말로 예술작품의 본질성 구성 요인이다. 그가 내세우는 퍼스펙티브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도 형식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루카치는 예술작품을 소재의 차원으로 끌어내린다. 그리고는 마치 영화에서 다루어진 문제의 책임을 영화 자체에 돌리는 검열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병적이고 백치적인 인간

을 다룬다고 해서 문학 자체를 병적인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의미의 미학적 규범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오늘날 진정한 예술은 재앙에 찬 현실을 찬양할 수도, 단순히 증복할 수도 없다. 자체의 자율적인 형식법칙에 따라 철저히 짜여짐으로써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며, 이로써 현실에 대한 가장 감격한 비판으로 혹은 부정적 유토피아로 된다.

제임슨 역시 모더니즘을 현실을 외면한 ‘퇴폐적’ 예술이라는 이들의 공격에 맞서 “사회적인 내용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 틀에 끼우거나 위치를 바꾸는 특정 기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내용을 눈에 안 보이게끔 형식 자체 속에 격리시킴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내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sup>13)</sup>이라고 주장한다.” “모더니즘은 역사적이고 정치·사회적인 충동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로서 다시 말해 그것들을 중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리만족을 제공하려는 등등의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다. 그런데 덧붙여야 할 것은 그러한 충동들을 먼저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더니즘 사업의 미묘한 대목인 바, 모더니즘은 자신이 일깨운 리얼리즘을 다음 순간 다시 억제하기 위해 스스로가 리얼리스트틱 해져야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sup>14)</sup>

따라서 실존주의의 한계는 루카치의 생각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모더니스트들에게는 무한한 ‘초월적 실재’는 인간의 영역 밖의 것이지만, 실재하는 세계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세계보다 커다란 어떤 ‘심미적 실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경험영역에 한정된 언어로 경험 밖의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밖에 없는 곤경 속에서, 그들은 비슷한 곤경을 풀어 나갔던 과거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경험론에 의해 소박맞은 낭만주의의 유산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이미 조건지워진, 이미 ‘결정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양을 수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예술이 아니라, 결정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의 조건을 변모시키는, 적어도 변모시킬 수 있다는

13) F. Jameson “Reflections in Conclusion,” *Aesthetics and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p.202.

14)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266.

비전을 가진 낭만주의적 예술을 원했다. 낭만주의 예술의 원동력이었던 창조적 상상력이 복위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과 “역사”가 재해석되었으며, ‘신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변증법을 수용할 경우 실존주의는 얼마든지 자신의 주관적 영역을 벗어나 객관현실을 논의하는 철학과 만날 수 있다. 사르트르가 「방법을 찾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르크스는 역사의 객관성을 외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이며 실존주의는 주관적 경험을 내부로부터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존철학은 해결적, 관념론적 사관의 전제와 수행과 결과를 역사적으로 자기 것 속에 고유화하고 인간을 실존하는 주체로서 새로이 ‘역사적’으로 기초하려는 하나의 탁월한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철학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결국 실존철학은 자기를 주체로 한 역사의 구성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자신의 시야에 전체로서 전망되는 생을 대할 때에 생을 위한 계획이 긴박성을 동반하며 새삼스럽게 실존이란 곧 책임인 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인생의 의미도 충실케 되는 것이다.<sup>15)</sup>

실존적 주체로서 개개인은 보다 생명력 있게 살아 있는 존재로서, 매순간 순간마다 그의 모든 힘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책임과 결단을 스스로의 문제로 맞이함으로써 개인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마치 인간이 숨쉬는 공기와 같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삶을 위협받게 된다. 그렇지만 역사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곧 일종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0년대는 모더니즘과 길항할 만한 또다른 축의 부재, 즉 리얼리즘 축이 형성될 수 없었던 까닭에 넓게 보면 실존주의 문학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모더니즘’ 문학의 독자적인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 문학의 구도에서 리얼리즘 축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은 이 시기 문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50년대 문학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

15) 조가경, 앞의 책, 232면.

의 결격 사유이자, 그와 동시에 부재하는 리얼리즘 문학의 성격을 실존주의 문학이나 모더니즘 문학 내부에서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낱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시기의 모더니즘은 언어와 관련된 문학적 발상의 모더니즘적 전회(轉回)와 더불어서 문명비판과 휴머니즘적 가치를 옹호하며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모더니즘적 시도 역시 뚜렷한 지향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실존주의 문학론은 해방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오다가 전쟁과 더불어 혼란과 파괴, 참담한 폭력을 경험한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세계인식의 이론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실존주의 문학론은 주로 불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수용·확산되었는데, 그 수용 과정에서 몇몇 비평가들에 의해 그 철학적 기반과 그 이념의 성격을 둘러싸고 비판적 논의에 부딪히기도 한다.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 논자들인 정태용과 백철, 그리고 최일수 등은 실존주의 문학이 파시즘 아래에서 전망을 상실한 소부르주아지의 철학이며, 인간의 고립과 소외, 불안 등을 선형적인 존재조건으로 상정하는 까닭에 비역사적이며 허무주의적인 관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적 논의와는 상관없이 실존주의 문학은 급속도로 수용되면서 넓게 퍼져나갔다.

철학의 통로보다는 주로 문학작품을 통해 받아들여진 이 시기의 실존주의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그 특질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한국전쟁과 그 직후를 '영도(zero point)의 좌표'라 칭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결빙점이나 비등점을 나타내는 경계지점으로 인식한다. 보편적인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게 나타나며 혹은 우연이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러한 상황은 비전형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개별성을 띠게 된다. 그때 개별자들이 순간 순간 우연적 사태들에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은 이성적 필연성을 내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반성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성의 속성상, 그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개별성에 접근

해 가며 즉자적인 상태에 머무른다. 그리고 그것이 결단과 자기기투의 문제의 나타나고 또 비록 대자적이라 말해질지라도 그것은 존재론적 자유의 문제의 문제이며 그 속에는 리얼리즘적인 역사적 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50년대 실존주의는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한 것으로 실존하는 존재의 주관적 인식을 더 우위에 두려는 제반 사유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나타낸다.

1930년대 이후 우리 근대문학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50년대는 이러한 두 개의 축에서 리얼리즘의 축은 거의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것이 50년대 문학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의 결격사유이자, 그와 동시에 부재하는 리얼리즘 문학의 성격을 실존주의 문학이나 모더니즘 문학 내부에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낳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지배력과 범위는 근대문학의 전개과정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대한 것이었다.

1950년대는 우리 한국문학이 그 의식이나 기법면에서 현대소설의 면모를 갖추게 된 시기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1950년대의 상황에서 전후문학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했고 전쟁의 비침한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과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1950년대 한국적 현실은 새로운 소설론적 방법으로 서구의 전후문학의 양상을 수용하는 등가성을 지닌다. 서구의 전후문단은 기성질서와 윤리사상 등에 반동하는 젊은이들에 의한 커다란 변혁을 수용하였다. 우리의 전후문단 역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정정신과 새로운 소설형식에 관심을 쏟는 소설기법의 혁명, 그리고 인간 존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 참고문헌

- 김봉구, 『작가와 사회』, 일조각, 1989.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김유동, 『아도르노 사상』, 문예출판사, 1993.  
 김치수, 김현(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1989.  
 김태환, 『모더니즘 문학과 소설시점의 이론』, 서울대 박사논문, 1996.  
 박이문, 『인간과 실존』, 문학과지성사, 1987.  
 신오현, 『자아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1987.  
 이어령, 『저항의 문학』(개정판), 기린원, 1986.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85.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연구』, 평민사, 1991.
- Adorno, T. W.,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Berman, M.,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문학사, 1994.  
 Bollnow, O. F., 최동희 역,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84.  
 Calinescu, M., 이영욱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Camue, Albere, 이가림 역, 『서지프의 신화』, 문예출판사, 1988.  
 Eagleton, T., 강대희 역, 『자본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론』, 도서출판 터, 1989.  
 Foulquie, Paul, 박은수 역, 『실존주의』, 정음사, 1987.  
 Frenzel, Ivo, 박준태 역, 『나이체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89.  
 Heinemann, Fritz, 황문수 역, 『실존철학』, 문예출판사, 1987.  
 Hinchliffe, A. P., 황동규 역, 『부조리문학』, 서울대출판부, 1986.  
 Lunn, Eugene,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지성사, 1986.  
 Müller, Max, 박찬국 역, 『실존철학과 형이상학의 위기』, 서광사, 1988.  
 Novack, George, 김영숙 역, 『실존과 혁명』, 한울, 1983.  
 Pappenheim, Fritz, 황문수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92.  
 Sartre, J. P., *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1948.  
 \_\_\_\_\_,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88.  
 \_\_\_\_\_, 손우성 역, 『존재와 무』, 삼성출판사, 1993.  
 Schaff, Adam, 박성수 역,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냐』, 인간사, 1987.  
 Wellmer, A., 이주동·안성찬 역,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녹진, 1990.

Willson, Colin, 이성규 역, 『아웃사이더』, 범우사, 1989.

Zimmer, Franz, 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8.

Bradbury, M. & J. McFarlane, *Modernism*, Penguin Books, 1976.

Eysteinson, A., *The Concept of Modernism*, Cornell Univ. Press, 1990.

Zuidervaart, L., *Adorno's Aesthetic Theory*, The MIT Press, 1991.